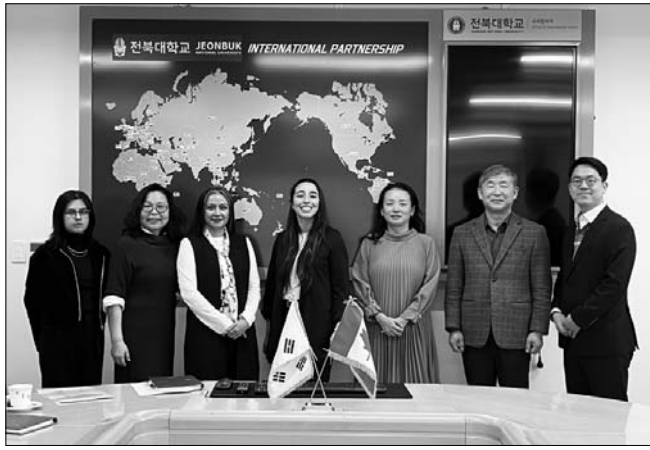


글로벌 식량 부족 해결 나서

전북대, 캐나다 나발대학교 공동 연구 협력키로... FAO 포함 다자간 연구로 확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세계식량안보 연구를 이끌고 있는 캐나다의 라발대학교(Laval University)와 글로벌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에 따르면 라발대학은 지난 4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전북대 국제처를 찾아 양 대학이 함께 개발도상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지난 4일 캐나다 라발대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전북대학교 국제처를 찾아 양 대학이 함께 개발도상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특히 이날 방문한 라발대학의 말렌 레온구즈만(Marlen Leon-Guzman) 박사는 농축산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는 전북대와 함께 연구하게 된 것에 기쁨을 표하고, 특히 농축산식품융합학과 이학 교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이공계와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식량안 접근법에 큰 공감과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북대-라발대학 간 연구 협업을 시작하고, 이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포함한 다자간 연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번 북미 대학과의 합동연구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

양오봉 총장은 "한 때 식량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명예"라며 "이 과정에서 전북대가 북미의 명문대와 함께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전북대가 세계적인 뿐 아니라 지역적인 진정한 글로벌 대학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현장체험학습 · 교복구입비 230억3000여만원 지원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절감 등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로 총 23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비는 131억4,800여만 원, 교복구입비는 98억7,600여 만원이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수확여행을 다녀오는 학년 전원에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1만6,018명, 중학생 1만6,190명, 고등학생 1만6,849명 등 총 4만9,057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교복구입비는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특수 포함)학교의 신입생과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교복)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 1만6,441명, 고등학교 1만6,481명 등 총 3만2,922명이 지원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큰 대회서 상까지 받아 자신감까지 얻어 기뻐"

전주비전대 최기동 학생 전북기능대회 '금메달' "전문가 되기 위한 노력 게을리하지 않을 것"

전주비전대학교 최기동 학생(기계과 2년)이 '제54회 전북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5일간 진행된 대회에서 총 34개 직종 중 배관부문에서 최기동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기동 학생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혜택도 받았다.

최기동 학생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취득 후 고위에서 수준높은 직업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좋았고, 큰 대회에서 상까지 받아 자신감까지 얻어 기뻐"며 "전문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희재 학과장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기반으로 전공 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초나래 시청각실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부임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유정기 부교육감 및 교육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실력·바른 인성 키우는 데 온 힘"

유정기 부교육감 "터닝포인트라는 생각으로 전북교육 발전"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초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부임식에서 "항상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더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전북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대 기획과장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지역대학육성과장, 학생복지정책과장, 학교안전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공주대 사무국장, 교육부 사회정책

협력관 등을 거쳐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 운명을 바꾸는 점 하나를 가리켜 '터닝포인트'라고 부른다"면서 "오늘 제가 내딛는 첫걸음이 새로운 도전, 새롭게 출발하는 터닝포인트라는 생각으로 전북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급 152곳 선정

전북자치도교육청, 생활 속 친환경 행동 실천 등 위해... 16일 담당교사 대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급 1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급 단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활 속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및 발굴된 운영사례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 주도적인 탄소중립 참여와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 전체 문화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 학급에는 학급당 1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배출 감축방안 모색 활동, 학교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 환경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탄소중립 실천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16일 탄소

중립 실천 중점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급 운영으로 학생들이 환경 감수성과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급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급 사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초 연계 이음학기 사업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시범운영 기관 등 대상 사업설명회

유·초 상호교육과정 이해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 '유·초 연계 이음학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기관인 59개 유치원과 협력초등학교 업무 담당자, 이음학기 현장지원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는 5세 2학기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입학 전 부모교육, 놀이중심 언어교육, 1학년 통합 교과 연계, 방과후 연계 수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기 사교육에 대한 개선 및 취

학 전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초 이음교육 운영 사례발표 △유·초 상호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안내 △유·초 연계 특색 교육과정 운영방안 협의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컨설턴트 계획 안내 순으로 이어졌다.

임대섭 유초특수교육과장은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은 교육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조기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입학 전 학부모와 유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핵심연구센터, 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와 협약

국립군산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신외성 핵심연구지원센터(센터장 최규재 교수, 기계공학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지역본부와 최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고, 협약의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연구지원센터는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분야별로 전문화된 센터(Co-Facility)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이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이 사업의 광주지역본부와 최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사 선발 비을 규정 삭제 및 응시제한 횟수를 삭제 시행한다. 학위 취득 실적 가산점은 2025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4일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1차 소양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역량평가를 거쳐 6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선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교직원 면담 등을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중심 학교문화를 이끌고, 또 성실하게 동료와 소통하며 노력하는 교사를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황학 어린이날 대잔치 성공 '맞손'

전주교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약 체결... 내달 5일 행사

행사 장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위한 예산 지원 등 골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024년 황학 어린이날 대잔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9일 전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맺은 주요 협약 내용은 △행사 장소, 시설 등 제공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기타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김경기 교육장은 "전주교육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날 방문한 가

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교는 공공 자원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황학 어린이날 대잔치는 5월 5일 전주교육대학교 캠퍼스 일대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익산 신중년 일자리센터 등과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반려동물산업학과와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익산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신중년 성공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원광대에 따르면, 최근 익산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반려동물산업학과 강원국 학과장과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김옥진 회장,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이효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광대 반려동물

산업학과는 신중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성공 취업을 지원하고,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연구, 취업 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산업학과장 강원국 교수는 "협약 기관 간 교육, 취업, 연구 등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특히 신중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산업 교육과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